

③ 과학기술 인재 육성

파격적인 특혜로 인재 적극 유치 주택 · 승용차는 기본

글 | 서행아 _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haseo@kistep.re.kr

지식반정보화사회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인재의 양성, 유입과 유출이 향후 기업경쟁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기업들은 인적자원 확보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강국전략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고급인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수한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파 유학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파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일류대학 건설 · 고급 전문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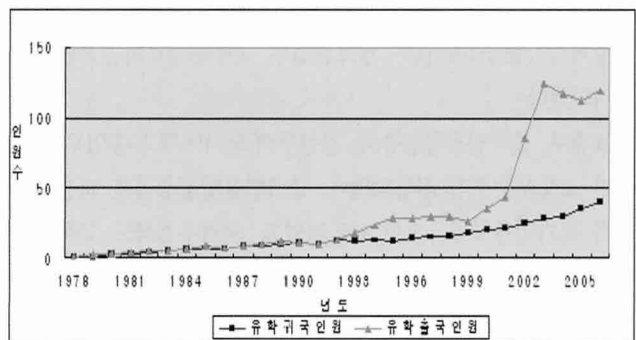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고등교육기관의 혁신, 서비스 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중국은 우수 혁신형 인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기술인재양성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준 높은 대학과 중점학과 건설 추진 강화를 위해 '211공정'과 '985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11공정이란 세계수준의 일류대학 100개와 중점학문분야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이론위주의 대학 교육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발전과 학문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이를 위해 일류대학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9차 5개년 계획기간(1996~2000)동안 211공정에 투자한 자금은 108억9천400만 위안(1조5천억 원)에 달하고, 주로 중점학과 건설, 공공서비스체계 건설, 기초기술 건설 순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학생수 증가, 교수 역량 강화, SC I논문 및 특허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하나의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는 '985공정'이며, 1998년 5월 100주년을 맞이한 베이징대학의 건의가 수용된 것으로, 세계 일류대학 및 연구중심대학을 핵심목표로 하는 것이다. 제2기(2004~2007년) 985공정은 대학관리체계 개혁, 운영체제 혁신, 공정관리제도 강화뿐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유학생 출국 및 귀국 규모 비교



북경대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계가 되었다.

둘째로는 국가에 특수한 공헌을 하여 국가차원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신세기 백천만 인재 공정'이다. 이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가가 2년에 한번씩 인재를 전략적으로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로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인원 중 청년과학수상자, 해외귀국인원, 국가우수청년과학기금지원자, 각 성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책임자 및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이 계획을 통해 선발된 국가급 인재를 지금까지 3천3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셋째 박사 후 인재 양성사업이다. 중국의 박사 후 연구원제도는 미국의 화교 과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리정다운 교수의 제안에 의해 지난 1985년 당시 덩샤오핑 주석의 직접적인 심사 비준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사 후 연구원제도는 외국의 우수 인재 육성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실제 상황과 결합시킨 우수인재 유치, 육성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박사 후 연구원을 위한 연구센터 및 사무소가 새롭게 1천533개가 설립되어

현재 총 3천105개가 되었다. 또한 박사 후 연구원도 2만8천500명이 참여하여 2007년 12월 기준 누적 박사 후 연구원 수는 5만6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국비 유학생의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해외 훈련사업을 실시하는 등 고급 인재와 청·장년층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 유학 인재 귀국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가로 국제 과학기술인력자원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현대경제발전 이론에 따르면 일정 지역의 경제발전은 노동집약형에서 자금집약형으로, 다시 지식집약형으로 전환하는 3단계 발전을 통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해외유학중인 자국인재의 국내유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

2007년 중국 교육 통계연감에 의하면 2006년 말까지 중국의 출국유학인원은 총 106만7천 여명이며, 이 중 유학 후 귀국인원은 27만5천 명이다. 특히 2006년 귀국자가 4만2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

해 21.3% 증가한 것을 볼 때 최근 들어 중국의 해외 유학인재 정책이 성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외유학생 중 대부분은 명문대학 출신 학생으로, 1985년 이후 칭화대학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전공한 학생의 80%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베이징대학도 그 숫자가 76%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유학생들은 유학을 미국으로 선택하며, 졸업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3년 간, 미국의 자연과학과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학생은 1만89명인데, 그중 미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92.5%였고,

1988~1996년 국가별 미국 수어 이공계박사 및 미국 체류 희망자 현황

국가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미국 체류 희망자 비율
1. 중국	17,100	85.5
2. 대만	10,000	47.7
3. 한국	8,700	36.1
4. 인도	7,000	79.1
5. 캐나다	2,400	55.4
6. 영국	1,040	69.3
7. 독일	1,200	55.7
8. 그리스	1,200	52.9

실제 미국에 체류한 인원은 63.6%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내 중국 고급인재 활약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의 20만 명의 엔지니어 중에도 중국인이 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술 주관 및 실험실 주임 중 35%가 중국계다. IBM회사의 11개 연구소 내 연구원 중 과반수가 중국계 인으로, 중국은 미국이 고용한 외국출신의 과학자 수가 가장 많은 동양 6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은 70만 명의 고급 학력의 인재들이 유학을 떠났으나, 학위 취득 이후 귀국한 사람은 1/3이며, 2/3 이상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9.11 테러 및 WTO 가입 등의 사건 이후 선진국의 경제하락을 계기로 해외유학생의 귀국 창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2001년에는 해외유학생의 귀국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인사부가 '유학생창업원관리법' 등 법률을 제정하여 유학생의 창업원을 통한 새로운 귀국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1993년부터 해외 유학생의 귀국 규모는 매년 13%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칭화대

적으로 60여 개의 유학생 창업원이 설립되었으며, 유학생이 창업한 기업 수는 4천여 개가 되고, 연간 생산가치도 100억 위안(1조 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해외 귀국 유학생에 의한 창업이 활발한 도시로는 상하이, 베이징, 광둥, 선천, 닝보 등을 들 수 있다. 2005년 국외로 출국한 유학생의 수는 3만5천여 명으로 이 중 국비 파견이 3천8명, 기관 파견이 4천770명, 자비유학이 2만7천200명이다. 1978~2005년 말까지 귀국한 인원의 총수는 23만2천900명이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유학을 통해 국가의 우수인재 양성뿐 아니라, 우수전문인재의 능력 배양능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유학생의 귀국으로 연구자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격적인 특혜 주는 강력한 유인정책

최근 들어 중국의 해외 인재의 귀국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단연 1990년대부터 국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강력한 해외 인재 유인정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해외의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환경개선, 과학연구기금 마련 등 다방면의 투입증가 뿐아니라, 기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여 해외과학기술인력의 귀환을 유도하였다. 90년대 초반부터 중앙 및 각 지방정부는 일련의 해외중국유학생 및 학자를 유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교육부의 '해외귀국학자 시드 머니', '장강학자 장려계획', 중국과학원의 '백인계획-귀국 후 3년 간



북경대학생들이 지난 7월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즐거워하고 있다.

200만 위안(약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매년 100여 명의 중국인 우수과학자를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또 중국 교육부와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중 대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9월 '111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100개 내외의 '대학학과 개혁 및 인재유치기지'를 설치하여, 해외 석학과 국내 연구자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재 육성과 과학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에 있다. 그 밖에도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해외 청년학자 협력연구 기금', '유학생 단기귀국 강의전문 출연기금'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유학인재 귀국을 유인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그린카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학 후 해외에서 과학연구, 금융, 경영 등의 방면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고급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이들에 대한 보수, 이익 분배, 중대과학기술계획이나 기금에 대한 평등 개방, 배우자의 취업과 자녀 입학문제, 기타 출입국에 따른 편의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12만2천2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재중 귀국유학인재는 27만5천 명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주택과 승용차를 제공하고, 재산의 해외반출 허가,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등

중국 사회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외국인이라도 내국인 자격을 주는 등 적극적인 해외 두뇌 유치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자국내 우수 인재 육성에 탄력을 주고 있다.

우리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우리 나라의 경우, 이공계 대학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BK21사업과 누리사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답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특

히 글로벌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폐쇄적인 해외인재영입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기술적 닛크래커의 상황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인재육성 및 유치를 통한 무서운 경제 발전은 가히 위협적이라고 할 만하다. 일본 또한 국가적 정책방향을 연구 인프라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기술적 도전뿐 아니라 인재 경쟁 상황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도 올해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연구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활용하고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의 연구 활성화와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 지원과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 및 해외인력유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국의 파격적인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내국인 대우 전략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ST



글쓴이는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후 서강대학교에서 중국경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에서 전략경영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창업 등이다.